



문화전당 봄축제 '시민 속으로'

3월26일~4월30일 매주 토요일
전당 주변 야외공간에서
재즈·포크·월드뮤직·인디음악 등
유명 예술가·시민 함께하는 무대
지역 청년작가 전시 공간 제공
100여개 시민 교육 프로그램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올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사진은 지난해 개관식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 시민들 속으로 들어온다. 문화전당은 야외 공간에서 봄축제를 진행하고, 지역 공연예술단체와 예술가들, 기업체와 단체 등에도 전당 공간을 개방한다.

문화전당은 3월26일부터 4월30일까지 6주간 매주 토요일(오후 2시~9시)마다 'ACC 봄마당 축제 : 봄(Spring), 봄(Seeing), 봄(Boom)'을 개최한다.

전당과 주변 야외공간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유명 예술가와 함께 시민들이 참여하는 무대로 꾸며진다. 재즈, 포크, 월드뮤직, 인디음악, 댄스 등 다양한 장르 음악과 퍼포먼스, 전시가 펼쳐진다. 또 각종 수공예품과 아트상품, 음식 등을 선보이는 플라마켓과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매주 시민 현장투표를 통해 선정된 인기상 2팀에게는 100만원 상금이 지급된다.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음악 동호회나 단체, 플라마켓 셀러는 홈페이지(www.acc.go.kr)나 SNS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공연 단체, 셀러들에게는 무대·음향 시설, 판매부스 등 시설이 지원된다.

지역 문화예술계와 함께 하는 동반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광주극장과 공동 주최로 25~28일 차이밍량 특별전을 열고 4월 15~17일에는 광주시립발레단과 공동제작한 '봄의 제전'을

를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4~12월 중 지역 대학 등 문화예술 전문 교육기관과 협력을 통해 포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예술인 20명에게는 창작공간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역 청년작가들이 전당 곳곳 공간에서 작품을 시연할 수 있는 '테스팅 그라운드'(Testing Ground) 사업도 계획했다. 이 사업은 청년작가들에게 공연, 제작 기회 등 실질적 예술작품 선보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

올 하반기에는 전시, 공연, 창·제작 콘텐츠 공모 프로그램인 '커뮤니티 윈도우'를 열어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공연 제작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커뮤니티 윈도우'를 통해 '소리의 숲(아트웨이 숲)', '비는 오지 않지만, 우리에게 우산이 있지'(검은 밤), '질문하는 인간-페이퍼 큐'(청년문화허브), '광인'(필름에이지) 등이 무대에 올랐다.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체험프로그램도 준비한다. 3~4월에는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터', 직업체험, 음악아카데미, 인문강좌 등 어린이,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100여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4~12월에는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과학·기술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인문학 강좌를 열고 5~12월에는 소

상공인, 산업체와 연계해 첨단문화기술을 교육하는 '크리슈머(Creashumer)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그밖에 오는 4월 한달간 광주를 비롯한 전국 기업체, 단체를 대상으로 아시아예술극장과 컨퍼런스홀 등 주요 시설을 대관할 방침이다.

대관 시설은 다목적홀과 컨퍼런스홀,

어린이극장 등 실내시설 15곳과 하늘마당, 예술극장 앞 야외무대, 옥상정원, 대나무정원 등 실외시설 9곳 등 총 24곳이다. 전기세 등 실비만 부담하면 세미나, 워크숍 등 기업이 원하는 각종 행사를 전당에서 열 수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데

좋아하는 그림 중에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Nighthawks·1942년 작)이란 작품이 있다. 20세기 미국회화사의 한 획을 그은 에드워드 호퍼(Edward Hopper·1882~1967)의 대표작이다. 모두가 잠든 밤, 뉴욕의 한 카페를 찾은 남녀 한 쌍과 중년신사, 그리고 카페 바텐더의 모습이 작가 특유의 감각적인 색감과 어우러져 적막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림속 홀로 술잔을 기울이며 밤을 지새우는, 한 남자의 뒷모습은 가장이란 무게에 눌려 사는 우리의 수많은 아버지이자 오버랩된다. 그래서일까. 낡은 앨범 속 빛바랜 사진

는 이유에서다. 괜찮은 곳에 자리를 잡고 '한끼'를 먹는 남자의 모습은 처량함과과는 거리가 멀다. 혼자 밥 먹는 그의 표정은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하다.

'고독한 미식가'가 화제를 모은 건 '혼자 있는 시간'의 역발상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사실 근래 서점가를 강타한 키워드 역시 '혼자 있는 시간 보내기'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고독이 필요한 시간' '나와 잘 지내는 연습' 등 베스트 셀러 목록에 오른 책들의 면면은 '혼자 있는 시간'의 열풍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 한다.

고독이 필요한 시간

처럼 언제 봐도 늘 가슴 한켠이 아릿하다.

지난해에는 '고독한 미식가'라는 '일드'(일본 드라마)에 얽혀 열 심히 쟁겨 봤다. 드라마를 보면서 10여 년 전 미국 연수시절, 일주일에 1~2회 정도 자발적으로 '나홀로 식사'를 즐겼던 일이 떠올라 피식 웃음이 나기도 했다.

드라마는 특별한 스토리 라인 대신 주인공이 음식점을 찾다니며 맛있게 음식을 먹는, 일종의 '먹방'이다. 도쿄에서 중개상을 하는 40대 남자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늘 어중간하게 '밥때'를 놓치게 된다.

늦은 점심이나 저녁을 혼자 해결해야 하는 주인공은 그러나, 아무 곳이나 들어가 후딱 끼니를 때우지 않고 맛집들을 찾아다닌다.

그렇다고 까탈스런 입맛의 소유자는 아니다. 유명한 식당보다는 뒷골목의 소박한 밥집에 들러 평범하지만 특별한 음식을 주문한다. 혼자 음식을 먹으면 식당의 분위기와 음식의 맛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이는 혼자 있는 시간은 많이 늘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시간을 잘 보내고 있지 못하는 요즘의 현실을 반영한다. 이들 책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강조한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의 저자 사이토 다카시는 "중요한 순간일수록 적극적으로 혼자가 되어야 한다. 무리 지어 다니면서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단단하게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혼자만의 시간에 게임을 하거나 '멍 때리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목상에 잠겨거나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생각의 근육'을 단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고독한 순간들이 없다면 사람은 내면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그런 점에서 올해는 종종 '고독을 즐기는' 것도 괜찮을 듯 싶다. 오래전 그랬던 것처럼, 가끔은 나도 '고독한 미식가'가 되련다.

〈편집부국장·문화선임기자〉

'풍류회 죽선방' 풍류마당 '십이율' 열린다

내일 빛고을국악전수관

전통 풍류음악을 보존하기 위해 지난해 결성된 '풍류회 죽선방' 두번째 풍류마당이 오는 25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국악전수관이 열고 있는 목요상설 국악한마당 초청 무대다.

'십이율(十二律)'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열두곡의 풍류 음악을 들려준다. 우리 음악이 황종, 대려 등 12율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준비한 주제다.

'향악', '관악 연산회상' 중 '함녕지곡', 관현악 반주와 함께하는 전통 성악곡인 가곡, '현악 연산회상', '천년만세' 등을 만날 수 있다.



조창훈 명인



성심은 교수

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 정악 예능보유자 조창훈 선생과 성심은 전남대 교수가 지도를 맡고 있으며 정성수·김미혜·고영란·서담·신경환·채광자·이성순·성수봉씨 등이 출연한다. 전시 무료. 문의 062-350-4557 /김미혜기자 mekim@

"이덕일 소장 유죄 판결은 학문의 자유 침해"

원로 학자 70여명 규탄 성명

'학문의 자유와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는 학계 원로 모임' 소속 학자 70여명이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이 소장은 자신의 저서 '우리 안의 식민사관'에서 김현규 전 고려대 교수를 식민사학자로 규정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소장은 김 전 교수가 '인내일부설'을 수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소장이 허위사실을 전제로 김 전 교수를 식민사학자로 규정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덕일 소장

성명서는 "학문적 비판을 학문의 장에서 토론으로 해결하지 않고 고소한 것은 학문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를 사법부가 나서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문명국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후진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학문적 행태와 올바른 역사관의 확립을 저해하는 반국가적 행태가 다른 아닌 국가기관에 의해서 자행되는 데 대해서 강하게 항의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여성재단 26일 '2016년 공모사업 설명회'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장혜숙)은 오는 26일 금요일 오후 2시 광주여성재단 8층 강의실에서 '2016년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주요 사업 대상은 '현장형 성평등 정책 실행사업', '여성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여성소모임 활성화 사업', '북카페작업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광주여성소모임사업' 등 총 5개 분야다.

설명회는 공모 대상 사업 소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예산편성 기준 안내 등으로 진행되며 광주지역 여성단체 및 유관기관, 여성일자리 기관, 여성문화사업 추진 기관, 여성소모임 등을 대상으로 한다.

광주여성재단 홈페이지(www.gjwf.or.kr) 참조. 문의 062-670-0531. /김미혜기자 mekim@kwangju.co.kr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무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대출 지원담당

☎ 062-383-4987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